

시조 서사의 예술 복원을 지향하며

*Toward the Restoration
of Sijo Narratives as Art*

안수현
An Soo hyun



Haechansol
PUBLISHING

시조 서사의 예술 복원을 지향하며

지은이 / 안수현

편집인 / 김수성

펴낸곳 / 도서출판 해찬솔

등록 / 2013년 2월 26일(제2020-000012호)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65

전자메일 / bunmei@hanmail.net

전화 / (070) 4239-0327

제1판 제1쇄 2025년 9월 30일

값 18,000원

ISBN 979-11-967969-5-2 (03810)

* 이 책의 내용을 사전 허가 없이 전재하거나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조 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지향하며

안수현

시조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박제된 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현재 속에서 호흡하며, 변화와 갱신의 가능성을 품은 살아 있는 예술입니다. 정제된 형식과 미학을 간직하고 있는 시조는 오히려 그 형식성 안에 무한한 주제의 확장성과 감각의 진화를 담아낼 수 있는 문학적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조를 다시 써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갈림길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빠르게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시조는 ‘옛것’으로 남겨둘 수 없는 시의 본질을 묻는 매개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조는 단지 ‘과거에 속한 노래’가 아니라, 과거의 시간성과 현재의 감각이 교차하는 문학적 시공간이며,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문학적 실험의 장입니다.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각의 등장과 그들만의 언어 구조, 감정의 코드, 미디어 환경 속에서의 표현 방식은 기존 문학 형식에 강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더 짧고, 더 강렬하며, 더 이미지 중심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동시에, 텍스트를 단지 ‘읽는 것’이 아닌 ‘소비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와 같은 미학적 전환은 시조에게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시조 형식이야말로 제한 속에서의 자유를 가장 예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적 구조임을 반증하는 계기가 됩니다.

시조는 3장 6구, 약 45자 내외의 간결한 구조 속에서 주제의 응축과 정서의 절제, 언어의 율립을 동시에 구현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내외內外’란 표현은 음수율의 탄력성을 전제한 것으로, 일정한 율격 안에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미학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짧고 깊은’ 표현의 요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으며, 시조는 오히려 MZ 세대의 감각에 적합한 고유한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조집은 이러한 인식 아래, 시조를 전통의 계승물이 아니라 현재적 실천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고전적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현대 도시의 풍경, 디지털 감성, 사회적 고뇌, 존재론적 사유, 세계 문학과 철학의 인용 등을 자유롭게 녹여냄으로

써 시조가 지금-여기의 독자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또한 시조는 단지 한국의 문학 형식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한글을 통해 세계문학적 상상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이쿠가 세계인의 시로 읽히듯 시조 역시 그 내면에 내재된 형식미와 정서의 보편성, 언어의 음악성, 그리고 감정의 미묘한 진폭을 통해 ‘한국의 시’를 넘어 ‘보편의 시’로 거듭날 수 있는 문학적 자산입니다.

1000년 이상을 견뎌온 시조는 그 자체로 언어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증명하는 살아 있는 문학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조는 그 유산 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과 상상력을 불러들이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시조집은 그 문턱을 넘어보는 첫 시도이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시조라는 전통 형식 안에 숨겨진 현대의 미학과 감각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통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발화되고 살아 움직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조는 고정된 유물이 아니라, 정형이라는 틀 안에서 자율성과 실험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창조적 언어입니다. 이 시조집은 서로 다른 감각과 세대, 철학과 사회적 경험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글이라는 고유한 언어로 쓰인 시조가 어떻게 세계 문학과 접촉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문학적 실천이자 선언입니다. 특히 이번 시조집에는 영어 번역을 병기함으로써, 한국의 시조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세계 독자들과 직접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자 합니다. 이는 시조가 단지 한국의 시가 아니라 세계문학의 새로운 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학 형식임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2025년 따뜻한 봄날

안수현 쓰다

Toward New Possibilities in the Aesthetics of Sijo

Sijo is not merely a fossilized relic of the past. It remains a living form of art that continues to breathe within the present, embracing the potential for transformation and renewal. Rooted in refined formal aesthetics, sijo paradoxically holds within its structural restraint a remarkable literary elasticity—allowing for the expansion of themes and the evolution of sensibilities.

Today, we stand at a critical moment in which sijo must be rewritten. In an era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blur, and where languages and cultures intersect with unprecedented speed, sijo is no longer a poem of the past, but a poetic form that confronts the very essence of what it means to write poetry. It becomes a literary space-time in which the temporal depth of the past collides with the sensory immediacy of the present—while also opening itself to aesthetic experimentation toward the future.

This shift is further accelerated by the emergence of the MZ generation, whose linguistic structures, emotional codes, and expressive modes—shaped by digital media environments—pose a profound challenge to conventional literary forms. This generation prefers brevity, intensity, and image-driven expression. For them, the text is not merely read—it is consumed and experienced. While such a transition may appear to threaten traditional forms like sijo, in truth, it demonstrates how sijo’s disciplined structure can most incisively realize freedom within constraint.

Comprised of three stanzas and six lines, totaling approximately 45 syllables, sijo is a compact poetic structure that synthesizes thematic concentration, emotional restraint, and the resonant cadence of language. The phrase “approximately” here implies an intentional flexibility of syllabic rhythm, allowing for expressive variation within formal boundaries. This structural aesthetic directly corresponds with the demands of the digital age: expressions that are “short but deep.” In this sense, sijo is not outdated—it is uniquely suited to the aesthetic tempo of our time.

This collection of sijo has been conceived with this awareness at its core. It seeks not to treat sijo as a mere object of preservation, but to re-situate it as a site of contemporary practice. While remaining faithful to classical forms, the

poems within freely incorporate the landscapes of modern urban life, digital sensibilities, existential questions, social unease, and intertextual dialogues with global literature and philosophy. They ask: What can sijo say to the reader of the here and now?

Sijo is not simply a korean poetic form—it holds the potential to expand into the realm of world literature through the expressive possibilities of Hangeul. Just as the Japanese haiku has entered the poetic consciousness of readers around the globe, sijo too—through its internal formal beauty, universal emotional resonance, musicality of language, and subtle gradations of feeling—can become not just “korean poetry,” but a universal poetic form.

With over a millennium of endurance, sijo constitutes a living literary history that testifies to the continuity of language and the persistence of artistic vision. Yet today, sijo does not rest on its legacy—it stands on the threshold of creative rebirth. This collection marks a first step toward crossing that threshold, and we invite readers to join in the rediscovery of the aesthetic potential and contemporary sensibilities embedded within this traditional form.

Tradition does not reside in the past—it lives in the ways we speak it anew, here and now. Sijo is not a fixed artifact, but a creative linguistic instrument—one that manifests autonomy and experimentation within formal constraint. This collection is both a literary practice and a declaration, exploring how sijo—through the unique medium of the korean language—can connect with the diverse landscape of global literature.

To further this vision, every sijo in this collection is presented with an English translation, not as an appendix but as an integral act of literary expansion. This bilingual format seeks to bring sijo beyond the confines of a single language, opening a path of resonance and dialogue with readers worldwide. In this way, sijo asserts itself not merely as korean poetry, but as a living, evolving literary form capable of shaping a new poetic texture within world literature.

Penned in the warm spring, 2025

by An, Soo-hyun

| 목 차 Contents |

들어가는 말 Prologue • 3

시조 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지향하며
Toward New Possibilities in the Aesthetics of Sijo

첫째 모듬 : 자연과 인간 First Section: Nature and Human Being • 9

「그 개는 어디로」 외 29편
“Where Has That Dog Gone?” and 29 Others

둘째 모듬 : 삶과 철학 Second Section: Life and Philosophy • 69

「지하철 환상곡」 외 29편
“Subway Fantasy” and 29 Others

셋째 모듬 : 관계와 사랑 Third Section: Relationships and Love • 131

「따뜻한 손」 외 29편
“Warm Hands” and 29 Others

넷째 모듬 : 역사와 문화 Fourth Section: History and Culture •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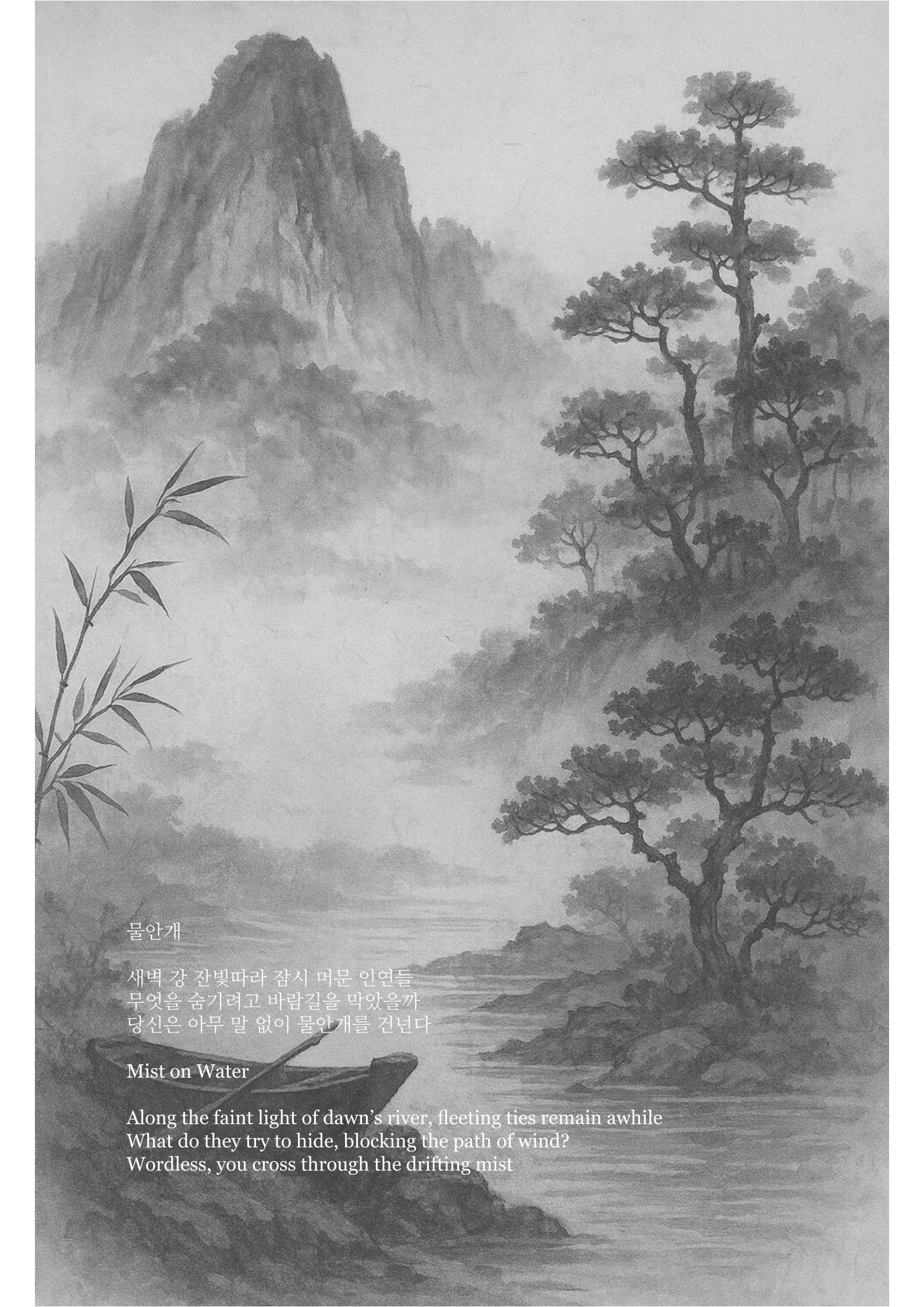
「훈민정음이 없었더라면」 외 29편
“If There Had Been No Hunminjeongeum” and 29 Others

평 론 Critical Essay • 255

「시조 문학 세계관의 재구성」
“Reconstructing the Worldview of Sijo Literature”

나오는 말 Epilogue • 281

포스트휴머니즘적 시조 문학의 예술 복원을 위하여
For the Artistic Restoration of Sijo Literature through a
Posthumanistic Perspective



물안개

새벽 강 잔빛따라 잠시 머문 인연들
무엇을 숨기려고 바람길을 막았을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물안개를 건넌다

Mist on Water

Along the faint light of dawn's river, fleeting ties remain awhile
What do they try to hide, blocking the path of wind?
Wordless, you cross through the drifting mist



첫째 모듬



그 개는 어디로

풀밭을 뛰던 그 개 그림자만 남긴 채
속삭이는 바람 소리 흔적도 사라졌다
저 언덕 너머 갔겠지 무엇을 찾으려나

Where Did the Dog Go?

The dog that ran through the meadow, leaving only a shadow
The whispering wind fades, leaving no trace behind
Perhaps it went beyond the hill, seeking something unknown

꽃보리 소나타

밤마다 늑어가는 꽃보리 어지럽다

옷소매 끌자락은 찬기운 메마른 땅

울타리 뜨락 아래로 새벽빛을 머금고

Sonata of Petals

Night after night, the aging petals scatter in swirling confusion
At the edge of my sleeve, a chill clings—over the barren earth
Beneath the fence, in the courtyard, the dawn's light quietly lingers

고개 속인 벚꽃

꽃들은인 하늘보며 해를향해 되건만
어이해 벚꽃만은인 고개를속이기가
지려고 피는것이 나점산의 빛이더나

Bowed Cherry Blossoms

Flowers bloom facing the sky, reaching for the sun
Yet why do the cherry blossoms bow their heads?
Do they bloom to surrender, or is it the light of humility?

매운 연기

누름물로 적신 낙엽 빈 소매 쓸어 모아

쉬 타지 않으려니 연기만 타드립니다

그래도 햇살이 벌써 구름밭 치만드립니다

Bitter Smoke

Tears dampen fallen leaves, swept into empty sleeves
Burning reluctantly, only bitter smoke remains
Yet, the sun already meets the clouds on the horizon

달에 간 코스모스

잃었던 틈새 사이 수줍게 외줄타기

마른꿈숯을 찾아 거친 숨물아쉬며

달에 간 코스모스는 목이 길어 슬프다

The Cosmos on the Moon

Lost in a narrow crack, shyly walking the tightrope
Seeking the forest of withered dreams, gasping for breath
The cosmos that reached the moon stretches its neck in sorrow

지구냄새

바람과 들꽃으로 내려앉은 그림자

비릿한 바닷새는 우주를 빙빙 돌고

껍질만 불덩이 일출을 지구냄새 그림자

Earth's fragrance

A shadow settles down with the wind and wildflowers
A fishy seabird circles the universe, endlessly turning
Only a shell—fiery face—how I long for the scent of Earth

서울무지개

서울비를달려서 무지개를 깨우다
뜨거운 햇볕과마다 겁데기를 벗긴다
거대한 신화의 기억은 밤빛깔 저주를

Cold rainbow

Racing through winter rain, I awakened the rainbow
Along every burning vein, I shed the outer shell
A colossal memory of myth—seven-colored curse

바람과 산딸기

바람은 뒤신지요
애물단지 피눈물

서럽게 참고 견디는 산딸기는 익습니다

미르가 보낸 산돌림 내일 다시 만납니다

The Breeze and the Wild Berry

O wind, who might you be?—an ill-fated burden, bloody tears
The wild berry, enduring and rough, ripens at last
A mountain breeze sent by the dragon—we shall meet again tomorrow

물고기떼

골짜기 바람품어 구름타고 내린 불씨

등지 잃은 철새들은 잠초라도 찾는다

부스스자다 캔두 눈물고기떼 덮인 하늘

Shoal of fish

A spark, carried by the valley wind, rides the clouds and falls
Homeless migratory birds search even for weeds to nest
A tousled, sleepy face—the sky covered with a shoal of fish

한바탕

듣자 하니 메아리고 보자 하니 우름이랴
바람에 몸을 실어 한바탕 놀았더니
이슬로 내려 가련다 헛걸음의 아노길

Fleeting feast

They say it's echo when heard, a drifting cloud when seen
I rode the wind in a brief, ecstatic flight
Returning now as dew, may this journey prove not in vain

낙타

웃자란 속눈썹에 낙타는 슬픈 모래

초승달 걸린 등불 사막 밤을 지킨다

목마른 노래 부르며 작은 별빛 삼킨다